



보도시점

2024. 2. 28.(수) 11:00
2. 29.(목) 조간

배포

2024. 2. 28.(수) 09:00

귀농·귀촌 10가구 중 7가구 생활 '만족'

- 농식품부, '2023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' 결과 발표
- 귀농 경력 5년차 연소득은 3,579만원, 귀농 준비기간 25.7개월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월 28일 「2023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.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귀농·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

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(U)형이 증가하여 귀농은 전체의 75.6%, 귀촌은 44.8%를 차지했다.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(J)형(귀농 12.3%, 귀촌 19.0%),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(I)형(12.1%, 36.2%)은 전년보다 감소했다.

귀농 이유는 자연환경(30.3%),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(22.3%), 가업 승계(18.8%) 순이었으며,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(24.9%), 정서적 여유(13.1%), 자연환경(12.1%) 순이었다.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(34.6%)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.

귀농·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·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가구의 69.8%, 귀촌가구의 52.9%가 '관계가 좋다'고 응답했다.

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,579만원, 귀촌가구는 4,276만원으로, 귀농 첫해 가구소득 2,420만원, 귀촌 첫해 3,58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7.9%, 19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귀농·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 전 234만원, 귀촌 전 227만원에 비해 29.9%, 17.2% 줄어들어 귀농 164만원, 귀촌 188만원으로 집계됐다.

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5.7개월, 귀촌은 15.3개월이었다. 준비기간에는 정착지역 및 주거·농지 탐색, 자금조달,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.

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3월 말부터 국가통계포털(kosis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2023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남현수 (044-201-1531)
	청년농육성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정성문 (044-201-1539)



1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'23. 10월 ~ '24. 2월(현장조사 '23.10~12월, 결과분석 '24.1~2월)
- 조사기관·방식 : (주)메트릭스(입찰·선정, '23.6), 면접조사
- 대 상 : 최근 5년('18~'22) 귀농·귀촌 6천가구(귀농·귀촌 각 3천가구)
 - * 통계청으로부터 '귀농어·귀촌인 통계' 명부('18~'22)를 받아 연도별·연령별 표본 배분·추출 후 귀농귀촌 유형, 준비과정, 주거, 경제활동 등에 대해 상세 실태조사('18~, 매년)

2. 조사결과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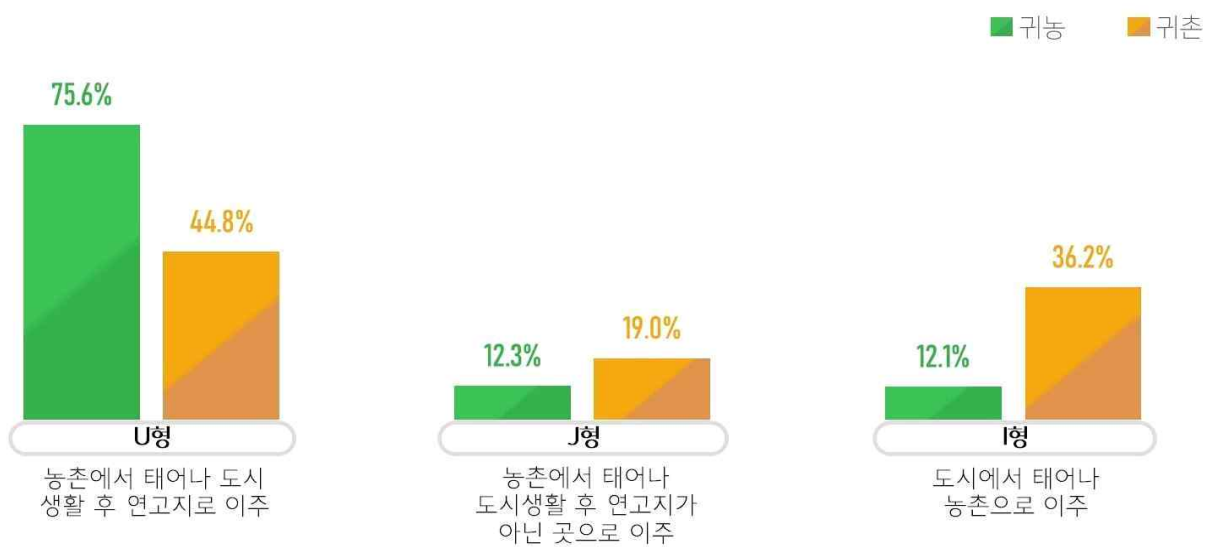
- (귀농·귀촌 유형)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(U형, 귀농 75.6%, 귀촌 44.8)하는 유형이 증가세*
 - * U형 '귀농' 비중(연도별) : ('19) 54.4% → ('20) 57.6 → ('21) 67.6 → ('22) 70.7 → ('23) 75.6
J형(농촌 출생→도시생활→무연고 농촌), I형(도시→농촌)은 감소세
- (귀농·귀촌 이유) 귀농은 자연환경(30.3%),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(22.3), 가업승계(18.8) 순,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취업(24.9%), 정서적 여유(13.1), 자연환경(12.1) 순, 연령대별 우선순위는 상이한 모습
 - 귀농의 경우,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*(34.6%), 가업승계(26.0), 자연환경(17.8) 순이나,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(50대 28.6%, 60대 37.3, 70대 43.0)
 - * 30대 이하는 '농업 비전·발전 가능성'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1순위 : ('19) 46.3% → ('20) 39.1 → ('21) 26.4 → ('22) 33.4 → ('23) 34.6
 - 귀촌은 청년층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(36.2%)이 1순위이나, 50대 이상은 정서적 여유(17.8%), 자연환경(17.6) 순

- **(준비기간)** 귀농은 평균 25.7개월, 귀촌은 15.3개월이며,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 및 주거·농지 탐색, 자금조달, 귀농귀촌교육 등 활동 수행
 - * (귀농) 정착지역 탐색(41.0%) > 주거·농지 탐색(33.1) > 자금조달(14.1) > 귀농교육(9.3)
 - (귀촌) 주거지 확보(38.5%) > 정착지역 탐색(37.2) > 일자리 마련(14.7) > 자금조달(7.6)
- **(가구소득)** 귀농 첫해 2,420만원 → 경력 5년차 3,579만원(47.9% ↑)
 귀촌 첫해 3,581만원 → 경력 5년차 4,276만원(19.4% ↑)
 - 귀농가구는 주로 채소(35.5%), 논벼(25.5), 과수(16.8)를 재배*하며, 주작목 선택 이유는 재배의 용이성(49.1%), 높은 소득(23.0), 주변인 권유(19.6), 지역 특화작목(4.6) 순
 - * 재배작목 : 노지·시설채소(35.5%) > 논벼(25.5) > 과수(16.8) > 서류(6.7) > 두류(6.4)
- **(지출)** 귀농·귀촌 (전) 234만원·227 → (후) 164(△29.9%)·188(△17.2%)
- **(지역융화)** 귀농가구 69.8%, 귀촌 52.9%, '지역민과 관계가 좋다' 응답, '나쁘다'는 응답은 각각 0.8%, 1.5%, 나머지는 '보통'
- **(귀농·귀촌 만족도)** 귀농·귀촌 10가구 중 7가구(귀농 66.7%, 귀촌 69.3%)가 귀농·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, 3가구(31.6%, 29.8%)는 보통, 불만족은 각각 1.7%, 0.9%
- **(정책)**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*으로 귀농·귀촌 모두 농지·주택·일자리 등 정보제공, 자금지원이라고 응답
 - * 귀농 : 농지·주택·일자리 등 정보제공(38.7%) > 농지·시설 자금·임대 지원(23.4) > 주택구입·임대 자금지원(13.5) > 귀농귀촌교육(6.6) 순
 - 귀촌 : 농지·주택·일자리 등 정보제공(38.0%) > 자금 지원(11.5) > 생활 관련(교육·양육비·출산장려금 등) 지원(9.7) > 귀농귀촌교육(7.5) 순

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



1 귀농귀촌 유형



2 귀농귀촌 이유



2023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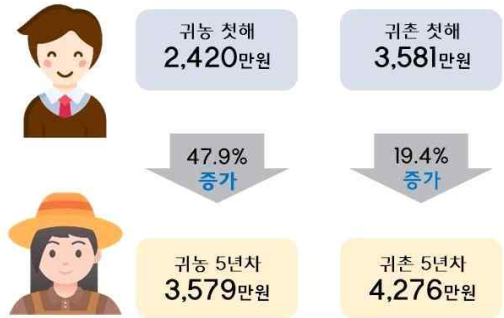
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

3 귀농귀촌 가구 소득·지출

귀농·귀촌 가구소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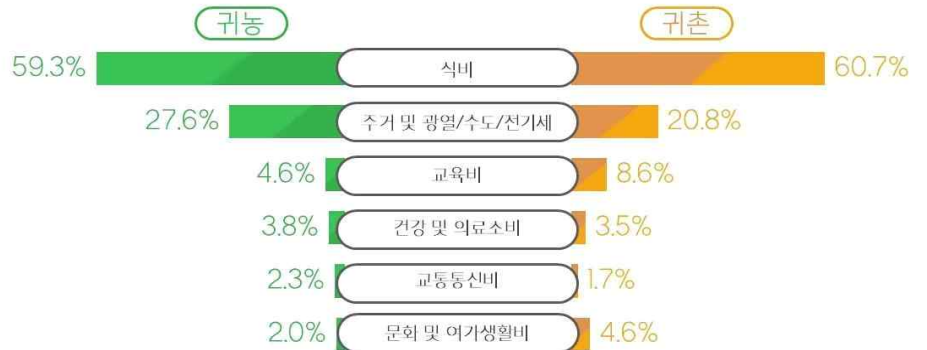
귀농·귀촌 5년차의 가구 소득 변화



월 평균 생활비



지출 항목



4 경제 활동

귀농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



농외 경제활동 수행이유



귀촌 가구의 경제활동



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종류



2023년

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

5 귀농가구 주소득 작목

주소득 작목



선택 이유



재배의 용이성
49.1%



높은 소득
23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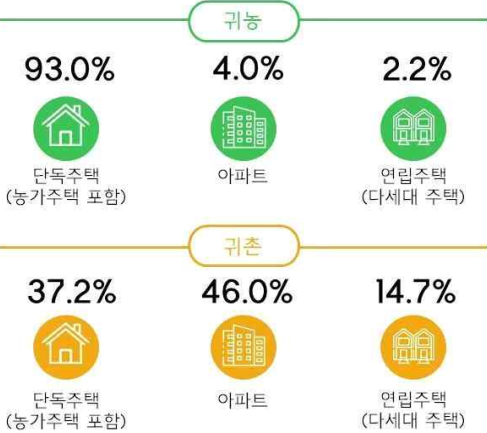
주변의 권유
19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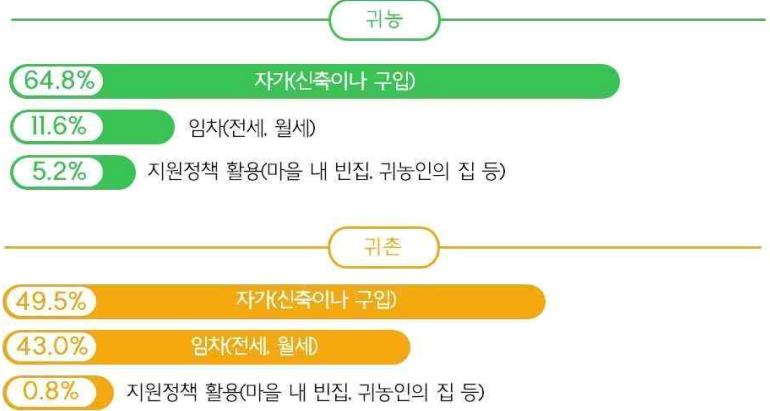
지역 특화작물
4.6%

6 주거

거주 주택 종류



주택 점유 형태



7 귀농귀촌 준비기간

귀농



25.7개월

귀촌



15.3개월

8 지역 융화

귀농



귀촌



9 귀농귀촌 만족도

귀농



귀촌

